

# 우리는 위대한 교회에 속해 그 터전을 놓고 있습니다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  
김 창선



**우**리 인간 생활을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전쟁은 내가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전쟁입니다.

손자 병법에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 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세계 속의 한국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수차 외국에 다녀온 일이 있고 지난 4월 연차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는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고 선한 국민이며, 도덕적으로 세계에서 모범되는 국민이며, 질서가 있고, 위대한 영도자 아래 세계를 향해 약진하는 산업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해서 자아가 상대적으로 강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위대해져 가는 국가에 속해 있고 위대한 교회에 속해 있음으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정말 나와 나의 가족은 물론 여러 성도들은 이 지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갖고 있으며, 참다운 행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연차 대회는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고, 대관장님을 위시하여 지도자들의 영적인 말씀은 완전히 우리 세대에 주어지는 예언과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국 일반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방

문한 교회 회원의 가정은 모두 계명을 순종하고 복음을 생활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물문은 용모로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귀로에 샌디아고 스테이크에 들려보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즐기는 주말일 토요일 밤 특별 모임에 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모여서 브리감 영 대학 교수를 모시고 장장 2시간 동안 교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있기에, 말일에 회복된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기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에 새로운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바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위대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의 그 터전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성도들에게 다시 몇 가지 목표를 드립니다.

- 1) 교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합당한 십일조를 바칩시다.
  - 2) 가정복음을 한주일에 2가정 이상씩 합시다.
  - 3)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 4) 교회 표준에 맞는 용모를 지킵시다.
  - 5) 아름다운 말과 항상 미소를 잃지 맙시다. 그리고 서로 진실하고 여유있는 우정과 사랑을 나누십시오.
  - 6) 도덕적으로 순결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을 충실히 지킵시다.
  - 7) 가정의 밤, 가족 기도회를 갖고, 가정의 밤 책자를 가족수와 손님을 위해 더 준비하십시오.
  - 8) 결정을 가까이 하고 내용에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속에 항상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 9) 나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고, 교회의 연륜에 알맞도록 구도자를 선교사에게 소개하고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라는 대관장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 10) 선조에 대해 4대 이상의 기록서를 작성하여 대리침례를 주도록 하고, 누구나 신전에 방문할 영적인 준비와, 경제적인 저축을 합니다.
  - 11) 신전이 이 땅에 빨리 세워질 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빌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